

# 서울의 문화지도, 색깔 달라진다

## '서울시내 出版文化地圖'를 만들면서

현대를 일러 '실험과 변혁'의 시대라던가. 80년대 말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 출판계에도 많은 실험과 변혁을 몰고 왔다. 출판계 내부의 질적 변화와 함께 '출판사의 급증'도 그런 상황 변화를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한다.

### 서울에만 3,500개... 20%가 鍾路區에

지금 서울시내에만 자그마치 3,500개 남짓의 출판사가 있다면 누구든 놀랄 것이다. 이는 작년 5월보다 764개사가 늘어난 숫자이고, 87년 10월 출판사 등록개방 때부터 따지면 1년반 동안에 무려 1,812개사가 늘었으니 매월 줄잡아 약100개씩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別表 참조). 현재 서울시내의 서점이 1,200개 미만(88년말 현재 1,114개=書聯통계)이고 보면, 출판사 수가 오히려 서점수보다 3배나 많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등록현황'일 뿐 실제 稼動率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出協당국의 추정으로는 그중 반수 정도가 실제로 출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गी이지만, 워낙 유아사망률이 높은 업종이어서 새로 생긴 출판사 가운데 과연 얼마만한 숫자가 살아남을지는 '실험'이 끝나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식산업의 일꾼'을 자임하고 나선 출판사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폭주함으로써, 만일 서울의 文化地圖를 새로 작성한다면 그 채색분布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한편 서울의 3,500여 출판사 중 20%가 넘는 712개가 종로구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은, 서울이 극도로 비대화한 오늘에도 종로 일대가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 여전히 확고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상 종로 일대는 개화기 이래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메카 구실을 해왔다. 특히 1920~3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근대출판을 개척한 유수한 출판사·서점들-예컨대 박문서관을 비롯해 한성도서, 조선도서, 동양서원, 以文堂, 덕흥서림, 동광당서점, 영창서관, 창문당서점, 대창서원 등이 모두 종로 2가에서 寬勳洞·堅志洞에 이르는 일대에 자리잡아 '출판벨트'를 형성하고 있었다.

### 개화기 이래 '출판의 메카'된 鍾路일대

오늘날의 출판사 분포도 그런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종로 거리를 중심으로 貫鏡洞·仁寺洞·淸進洞·壽松洞·寬勳洞·堅志洞·樂園洞·慶雲洞 일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이밖에

서울시내 출판사 등록현황

구분	89.5현재	88.5현재	증 감	비 고
계	3,525	2,761	+764	
종로	712	621	91	
중구	694	506	188	
용산	205	177	28	
성동	93	66	27	
동대문	178	140	38	
중랑	20	14	6	
성북	88	80	8	
도봉	39	31	8	
노원	8	6	2	
은평	56	41	15	
서대문	179	150	29	
마포	337	289	48	
강서	32	18	14	
양천	11	6	5	
구로	30	19	11	
영등포	220	160	60	
동작	70	64	6	
관악	58	44	14	
강남	238	160	78	
서초	176	122	54	
강동	29	17	12	
송파	52	30	22	

新門路 일대와 서대문 직십자병원 뒤편 平洞·橋南洞, 그리고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한적한 通義洞 부근도 출판사들이 선호하는 지대로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음을 본다.

종로지역 외에 통계상으로는 중구·마포구·강남구·영등포구·용산구의 순으로 출판사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기존 출판사들이 대거 밀집, 일대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서대문 로터리 부근 忠正路 일대에서 阿峴洞·孔德洞을 거쳐 麻浦·西江에 이르는 지역과 元曉路 일대가 종로지역에 버금간다. 이밖에 西橋洞 일대도 최근에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출판사 종사자(직원)들의 이직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판사 자체의 稼動率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출판업은 업종상 제조업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느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運身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흔히 "책상 하나에 전화 한대"면 출판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출판업은 고도의 '두뇌집약적 산업'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대개는 사무실 임대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짬' 곳을 찾아 輾轉하는 것이 상례여서 출판사의 영세성이랄까 출판사 운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증한다. 반면 최근에는 그런대로 탄탄한 지반을 쌓은 중견 출판사들의 상당수가 독자적인 사옥을 마련, 복잡한 도심지에서 벗어나 주택가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최근 麻浦출판단지 해체로 일부 출판사들의 이동이 있었지만, 작금 뜻있는 출판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新도시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실현된다면 머지않아 '창세기 이래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실로 출판산업계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 틀림없다.

### 출판사·서점 및 관련기관 망라

'문화지도'라면 우리에게 약간은 생소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이렇다 할 문화지도 한장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어설픈 '관광지도'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텔과 큰 음식점 이외는 古宮 정도만 덩그러니 그려놓아 발행자의 문화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서울 시내의 이름난 화랑가·서점가·골동상가는 물론 하다못해 세종로 한복판의 '교보문고'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東京·大阪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웬만한 도시면 컬러인쇄로 된 시가지 안내지도 책자가 반드시 마련돼 있는데, 각 구역별 일러스트지도가 문화시설 중심으로 상세히 그려져 있어 처음 가는 사람도 그 고장의 문화적 향취를 만끽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에 「출판저널」은 창간 2주년(7월 20일)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한국 초유의 '출판문화지도'를 작성기로 하고, 그 첫번째로 '종로지역'을 이번호(24~25면)에 내보낸다. 다만 정기간행물이라는 특성상, 지도작성에 몇가지 제약이 따르는 부득이하다.

우선 지역구분은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출판사의 분포상황을 기준으로 다음의 5개 지역으로 나눈다.

- ① 鍾路지역: 종로3가~돈화문 以西지역에서 영천에 이르는 종로구 관내 일원. 태평로·서소문 지역을 포함한다.
- ② 西大門·麻浦지역: 서대문 네거리 충정로 일대에서 아현동·공덕동을 거쳐 마포·서강에 이르는 지역.
- ③ 新村·西橋지역: 북아현동에서 신촌 일대를 거쳐 서교동 일대에 이르는 지역.
- ④ 東大門·安岩지역: 종로4가 以東 동대문·신설동·안암동 일대에 이르는 지역.
- ⑤ 江南지역: 역삼동 일대에서 서초동·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거쳐 반포동에 이르는 지역.

이 지역구분은 어디까지나 지도작성의 편의를 위함이며, 실제 작성과정에서 적절히 변경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 지도에는 ① 출판사를 중심한 주요 서점·인쇄소·제책사 ② 주요 편집디자인사·저작권 에이전시 기타 출판관련 기관·단체 ③ 이밖에 관내 대학·도서관·신문사·박물관 등 주요 문화·교육기관들이 망라될 것이다.

다만 출판사의 경우, 그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출판협회 會員社를 기준으로 하되, 非회원사라도 출판활동이 활발한 출판사는 되도록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출판문화지도'는 앞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정·보완될 것이다. 많은 출판사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이승우 편집주간